

<화학산업 의식을 개혁하자>

울산단지는 제3자 체제로 ...

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단지 구조조정 논의도 본격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산단지는 현대석유화학과 삼성종합화학이 통합기로 합의한 마당이니 통합방법 및 특혜지원에 대한 논란은 뒤따를 수 있으나 결론지어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고, 여천단지는 일단 LG화학이 주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호남석유화학, 대림산업, 한화종합화학 4사의 눈치싸움과 이합집산이 불꽃을 튀기고 있다.

울산단지는 NCC 가동기업이 SK와 대한유화 2개사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는 다운스트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대한 별 논의가 없는 듯하다. 현존 NCC 2사의 역사나 매출액, 사업규모로 볼 때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다만, SK가 사업규모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SK가 대한유화를 흡수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일 뿐만 아니라 타당성 면에서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특히, SK와 대한유화는 기업문화의 차이가 크고, 상호 융합될 수 없는 악감정이 많다는 측면에서 SK로의 일방적인 통합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첫째, SK와 대한유화가 다같이 NCC를 가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SK는 90년대 초부터 합성수지 생산에 들어갔으나, 에틸렌 및 프로필렌, BTX를 생산해 다운스트림에 공급하는 체제를 중요시해왔다. 반면, 대한유화는 90년대 이전까지 PP 및 HDPE 시장을 장악해왔고, 90년대 초반 에틸렌 30만톤 NCC를 가동하면서부터 기초유분 대부분을 자급자족하고 있다.

즉, 대한유화의 생산품목이 SK와 일부 겹치는 것은 사실이나, 각각의 생산시스템이나 마케팅이 전혀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통합한다해도 규모화 이외에는 별다른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SK나 대한유화가 의견을 같이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울산단지는 SK와 대한유화 2사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논의보다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다운스트림과 병합해 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된다. 통합의 원칙이 규모화와 연관되어 있으나, 그 보다는 시너지효과를 타겟으로 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SK와 대한유화는 상호간의 기업문화가 융합되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있음은 물론, 80년대 내내 기초유분 수급 및 수입 파이프라인을 둘러싸고 감정적 충돌을 빚어왔다는 측면에서 현실적 필요성과는 별개로 통합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양사의 감정싸움은 SK가 기초유분을 생산하고 나머지 다운스트림은 SK의 에틸렌 및 프로필렌, BTX를 공급받아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1단지 1NCC기업 정책에 연유하고 있으며, 대한유화가 PP 및 HDPE 생산능력을 크게 증설한 80년대 후반에 극에 달했다.

다만, SK와 대한유화의 감정싸움이 도를 지나친 것은 사실이나, SK로부터 기초유분을 공급받았던 울산단지 다운스트림은 누구누구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악감정을 가졌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다. 대한유화가 NCC를 건설하고, 기초유분 수입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90년대 중반까지는 SK의 독과점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한유화의 법정관리도 경영진의 판단능력을 논외로 한다면 실상은 SK와의 감정싸움에 따른 결과이고, 아직까지도 양사간에는 감정을 해소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통합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구조조정은 SK와 대한유화 2개사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운스트림을 포함해 규모화와 아울러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SK의 경영행태로 보아 울산단지 구조조정을 주도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SK의 석유화학 부문을 포함시키되 제3자 인수 또는 SK를 배제한 석유화학 통합기업 설립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SK는 석유화학에서 손떼고 석유정제에 전념하는 것이 울산단지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화학저널 1999/2/1>